



300자로 hips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야유 가득했던 경기, '흔들리는 한국축구'

지난 5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 결과는 약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다.

경기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선수들의 실망스러운 경기력 외에도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붉은악마들의 야유가 경기 내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치러진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아나운서 소개 때부터 홍명보 감독이 전광판에 잡힐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 경기 소강상태일 때는 "정몽규 나가"라는 구호가 반복됐다.

이에 수비수 김민재가 경기 종료 이후 관중들을 직접 찾아 야유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붉은악마와 선수 간 갈등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민재는 관중을 향해 "좋은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라며 경기 내 이어진 야유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도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하신 것 같아 아쉬워서 그랬다"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혀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선수들을 향한 야유가 아니었지만, 경기장에서 시작하기 전부터 야유가 들리니,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서포터즈는 "저희의 야유와 항의는 거짓으로 일관하는 협회와 스스로 본인의 신념을 저버린 감독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못 하길 바라고 지기를 바라고 응원하신 않았다"며 "김민재 선수의 아쉬움은 이해하나 표현의 방법과 장소는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선수들을 향한 응원소리가 가득했어야 하는 경기장에 감독, 협회장에 대한 야유가 가득했던 이유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축구협회가 당시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린스만을 경질, 차기 감독으로 유수 외국인 감독을 우선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홍 감독을 선택한 것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임 전까지 대표팀 부임을 강하게 부인했던 홍명보 감독에 대해선 '위선'이라 칭하며 팬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은 오는 10일 피파랭킹 76위 오만과 두 번째 예선 경기를 치른다. 일각에서는 선수를 향한 야유가 아니더라도 경기에 방해되는 수준의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nackNews #흔들리는한국축구 #박소영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ICT NOW DOWNLOAD THE OFFICIAL AFC LIVE APP AFC Acaden of Exce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차전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에서 붉은악마를 비롯한 관중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향한 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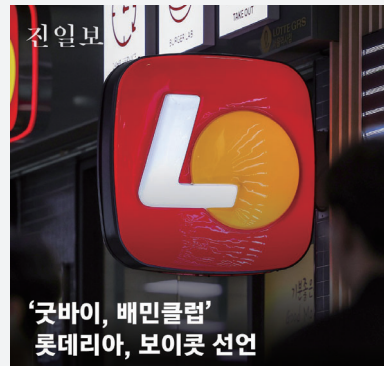
'깜깜이' 동물병원비 내년부터 공개 '의무'

내년부터 동물병원들은 CT, MRI 등 총 20여종의 가격을 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해당 내용을 고시 제정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 것이다.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은 기존 12종에서 8종이 추가됐다. 추가 항목은 혈액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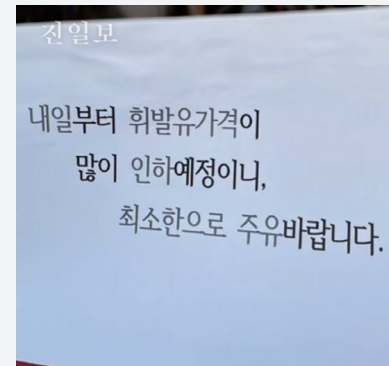
파리서 만나는 전통공예의 '멋'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 '메종&오브제'에 한국의 멋이 가득 담긴 다양한 전통공예품이 선보인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11일까지 전시관을 운영해 무형유산 종목 소개, 공예품 판매를 진행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가무형유산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과 스튜디오 오리진이 협업한 '화조 화각팔각함', 국가무형유산 탕건장 전승교육사 김경희와 관·모 디자인이 협업한 '탕건의 패턴 전개', 국가무형유산 장도장 이수자, 박남중의 '흑단은장편장도' 등이 있다.



'굿바이, 배민클럽' 롯데리아, 보이콧 선언

롯데리아가 가맹점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해 '배달의 민족' 유료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배민은 지난 5월부터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무료 체험 형태로 도입 중이며 오는 11일부터 유료화된다. 구독료를 지불한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이라는 당근을 얻을 수 있지만, 점주들은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롯데리아는 노출 감소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클럽'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기름값 인하 소식을 미리 알린 정유한 셀프 주유소의 '양심 영업'이 운전자들 사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골이 되고 싶은 주유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 주유소는 결제 창구에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할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해질 때 주유하라고 공지한 업주의 선행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 "해당 업체를 알고 싶다", "돈줄 내야 한다", "양심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